



한국 언론학의 영역주의와 정체성의 위기

임영호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1. 서론

어떤 학문 분야의 정체성은 지식의 세계내에서 자신의 권위와 존재 이유를 어떻게 설정 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추상적인 과정은 권력 자원이 아니라 이론적 담론을 동원해서 진행되기는 하지만, 관할 구역의 설정과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권력 과정과 유사한 점이 있다.

학문 영역의 확정 과정은 대학이나 연구 기관, 학회라는 제도적 틀내에서 연구 자원의 조달, 지식의 전수 방식 등을 통해서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권력 과정의 성격을 가지기도 한다. 넓게 본다면 지식에 대한 정의 자체가 다양한 지식 형태들에 대해 배제와 포섭 전략을 구사한다는 점에서 상징적 권력의 성격을 띤다. 즉 학문 분야의 정체성 설정의 문제는 지식 생산의 권력 과정이며, 이 권력 과정에서 지식의 정의라는 추상적 측면과 학문적 자원의 동원을 수반하는 현실 정치 역학의 측면은 밀접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언론학 영역의 정체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언론학이 이론적 영역으로서 또 제도적 영역으로서 갖는 성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한국 언론학의 정체성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언론학이 학문 세계내에서 혹은 현실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고 어떤 역할을 해왔느냐 하는 문제이다. 한국 언론학은 학문 분야로서 또 대학 제도의 일부로서 짧은 기간내에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변화해왔다. 이러한 변화는 언론학계 내부의 학문적 관심사와 연구의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넓게 보면 언론학이 현실적인 사회 정치 상황과 언론계의 변화에 대응해온 과정을 보여준다.

이 글은 언론학이 영역으로서 갖는 정체성의 문제를 크게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누

어 검토해본다. 첫째, 한국 언론학의 “영역주의”는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그 함의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한국 언론학이 배타적인 관할 영역이라는 공간적 측면에서 정체성을 설정해왔다고 보고 이를 영역주의라고 이름 붙였다. 하지만 이론적 실체로서의 영역주의와 제도적 실체로서의 영역주의는 구분되어야 한다. 언론학은 학문적 담론으로 정당화시킬 수 없는 이질적인 지식 형태들도 언론학의 제도적 영역내에 포섭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실체로서의 영역주의는 언론학의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두번째는 언론학 영역의 이질적 구성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이다. 한국 언론학은 제도적으로 관할하고 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들을 영역으로 표방했다. 그러나 이같이 다양하게 생산된 지식 중에서 학문적기준에 의해 이론적 지식으로 인정받는 지식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같이 언론학의 제도적 영역과 공인된 지식 영역의 불일치는 어떤 함의를 갖는가? 그리고 지식에 권위를 부여하는 메카니즘, 가령 학문적 지식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언론학의 정체성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셋째, 언론학에서는 이론적 지식이라도 높은 현실 연관성 혹은 실천성, 가령 정책 과정에 대한 영향력, 사회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 기능 등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실천성은 언론학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다. 영역주의가 언론학의 실천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비판 언론학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검토해본다.

언론학의 정체성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 경향에 대한 해석을 토대로 한다. 하지만 여러 분야의 다양한 연구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은 이 논문의 범위내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언론학 분야중에서도 주로 비판 언론학 이론이나 몇몇 매체 이론 분야에 국한시켜 논의한다.

또한 엄격한 의미에서 연구 동향은 논문이라는 연구 결과로만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아직 이론적 경향을 일반화할 수 있을 만큼 양적으로 충분한 연구들이 축적되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들 수 있지만, 한국 언론학의 독특한 풍토와도 관련이 있다. 한국 사회에서 특정한 학문적 조류나 유행을 읽어내는 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학술성이 다소떨어지는 채널들, 즉 지식 이벤트, 평론, 학회 분과내의 논의들, 대학 사회의 유행 등의 사례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한국 언론학에서 이론적 동

향은 구체적인 연구 성과의 양적인 축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연구자 집단들이 연구에 대해 보여주는 태도나 성향, 정서적 반응의 형태로도 나타난다.¹⁾ 따라서 언론학의 정체성 문제에 대한 이 분석은 언론학 연구자 공동체내의 추세를 읽어내고 평가하는 사변적인 작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논문은 그동안 나온 논문들뿐 아니라, 언론학 연구자 집단에 속한 구성원으로서의 경험과 관찰을 토대로 정리했다. 즉 이 글은 연구자 집단내의 지식 문화, 윌리엄스(Williams)의 용어를 빌리면 연구자 집단의 “감정의 구조”²⁾(structure of feeling)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작업의 성격을 띤다.

2. 영역주의와 정체성의 설정

한국의 언론학은 다양한 동기에서 생겨난 이질적인 지식 형태들을 묶어서 한 분야로 정착되었다. 사회과학의 한 분과로서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관한 이론적 지식뿐 아니라, 학부 수준의 실무 교육에 필요한 실용적 지식까지도 언론학이라는 제도적 분과속에 포함되었다. 이와 같이 잡다한 지식 형태들을 다른 학문 분야와 구분되는 하나의 영역으로 묶어준 공통분모는 대학의 학과라는 제도적 틀이었다. 언론학의 정체성은 제도적인 영역화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언론학이 제도적인 영역으로서 갖는 정체성은 학문 영역으로서의 정체성과 상당한 괴리를 갖게 되었다. 영역내의 다양한 지식 형태들간의 이질성이야말로 언론학의 독특한 정체성을 낳게 한 것이다.

언론학의 이론적, 철학적 빈곤은 바로 언론학이 학문적 자기 성찰없이 제도적 위상 확립을 통해 정체성을 찾으려한 데에서 비롯했다고 피터스(Peters)는 지적했다.³⁾ 그는 주로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문제점을 역사적으로 추적했지만, 그의 지적은 한국 언론학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데에도 많은 시사를 주고 있다. 언론학 분야의

1) 1990년대 초까지 한창 유행했던 전통적 패러다임과 비판 패러다임의 논쟁을 예로 들 수 있다. 실제로 논문 편수로만 보자면 한국 언론학 분야에서 전통적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는 종류의 실증적 연구들은 오히려 소수에 불과했다. 비판적 패러다임의 경우를 보더라도 오늘날 '80년대의 열기를 가늠해볼만한 연구 결과물은 그다지 많이 남아 있지 않다.

2) Williams, R, *Marxism and Litera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3) Peters, J., "Institutional Sources of Intellectual Poverty in Communication Research," *Communication Research*, vol.13, no.4, 1986, pp.527-559.

영역주의적인 인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학문적 실체로서의 측면에서이다. 이질적이고 다양한 학술 활동들은 주로 학회나 학술지 등 학술 활동의 공통적인 형식적 절차를 통해 하나의 학문 영역으로 묶어져 제도화된다. 둘째는 대학내의 제도적인 실체로서의 측면에서이다. 특히 학부 수준에서 전수되는 실무적 지식은 학문적인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언론학이 대학내에서 제도적으로 존재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그밖에도 한국 사회에서는 언론학자들이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양한 형태의 지식을 만들어내는 데에 관여한다. 이러한 지식들은 나름대로의 전문성은 지니지만 학술적 활동으로 공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언론학은 이러한 비학술적인 지식의 생산과 전수를 맡는 기관의 역할도 한다. 한국의 언론학은 이 두 가지 이질적인 역할을 영역주의의 관점에서 포괄하고 있다.

영역주의에 근거해 언론학의 정체성을 체계화하게 된 것은 1970년대에 이르러 이루어졌다. 가령 1976년에 초판이 나왔던 차배근의 <커뮤니케이션학 개론> 상하권은 언론학을 독자적인 학문 영역으로 체계화, 집대성하려했던 당시의 영역화 노력중에서 대표적인 저작이다. 그의 책에서 특히 두 가지 주장이 주목할 만하다. 하나는 “커뮤니케이션학”이 고유의 “지적 탐구대상영역”과 연구방법, 그리고 연구 결과를 체계화시킨 이론들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하나의 독립된 학문” 분야임을 누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⁴⁾ 둘째는 커뮤니케이션학에 과학적(이론적) 지식 뿐 아니라 기술적(실용적) 차원, 정책적 내지 규범적 차원의 지식을 포함시켜 체계화하려했다는 것이다.⁵⁾ 차배근은 언론학을 학문적으로 정립하려 하면서도 실용적이고 정책적인 부문까지도 포괄함으로써 언론학의 영역을 당시로서는 다소 과도하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야심차게 확장했다. 하지만 이후의 학자들도 이와 같이 야심찬 영토 구획을 대개 그대로 따랐고, 1980년대 이후에는 언론학의 급속한 성장과 팽창으로 이러한 청사진이 상당한 정도로 현실화되었다. 이것은 동시에 오늘날 한국언론학이 정체성 문제로 고민하게 된 단초를 제공하였다. 언론학의 정체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편의상 언론학의 제도적 위상과 이론적 영역으로서의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분해서 살펴본다.

4) 차배근, <커뮤니케이션학概論(上): 全訂版>, 서울: 세영사, 1991, 15-7쪽.

5) 같은 책, 100-1쪽.

1) 언론학의 제도적 위상과 정체성

학문 분야의 제도적 정착이 일종의 권력 과정의 성격을 띠고 본다면, 한 분야로서 생존하려는 욕구가 어느 정도 절실한가 하는 문제는 언론학의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언론학은 실무 교육등 비학문적인 활동에 상당 부분 의존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학의 제도적 위상에 대한 이해는 이 분야의 정체성 문제를 파악하는 데에 아주 중요하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언론학은 학문적 지식의 권위 위계 내에서는 학문 제도 내에서나 상대적으로 위상이 취약했다. 제도적 기반면에서는 관련 학과를 개설한 대학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고,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언론의 위상이 위축되어 관련 직종들이 큰 인기가 없었던 점도 언론학의 위상을 설정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학문적 지식의 권위면에서도 저변 연구층이 얇았고, 학문적으로 축적된 지식 이상대적으로 빈약해서 학문 영역으로서 독자적인 지위를 구축하는데 고민했던 흔적이 보인다. 차배근의 저서에서 볼 수 있듯이 언론학을 다른 분야와 구별되는 배타적인 “영역”으로 체계화하려고 애쓴 것은 이와 같이 취약한 제도적 위상과 적지 않게 관련이 있을 것이다.

1980년대 이후에는 학문의 “제도적” 권력 위계내에서 언론학의 지위가 크게 신장되었다. 언론학의 제도적 위상 신장은 80년대의 사회적 변화와 관련이 있다. 우선은 “언론고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언론인 직종이 인기를 끌게 되었고, 각 대학의 신문방송학과가 인기학과로 부상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공익자금으로 운영되는 많은 언론 관련 기구들은 언론학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자원과 활동 공간을 마련해주었다. 하지만 이 무렵부터 언론학의 제도적 위상과 정체성에 관한 고민들은 상대적으로 희박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와 1990년대를 비교해보면, 언론학의 정체성에 관한 인식이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주로 정치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 1980년대의 언론학이 누리기 시작한 풍요는 정치적 억압 구조하에서 얻어진 것이어서, 사회개혁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기존의 언론학에 대한 도전과 반감을 조성해 비판 언론학을 싹트게 하기도 했다. '90년 전후에 이르러서는 학회 차원에서 패러다임간의 대화를 시도하고 거대이론의 문제의식을 수용하려 하는등 언론학의 이론적 정체성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적지 않게 자극을 받았던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정치 적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언론학의 풍토 역시 급격히 변모해갔다. 이 시기에는 한편으로는 언론학이 학문적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 무관심해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학의 위상에 대해 집단적인 자신감과 낙관적인 분위기가 지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어떤 학문 분야의 인기가 어느 정도 부침을 겪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언론학의 제도적 위상은 외부적 여건의 변화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문제는 언론학이 학문적 제도의 한 분과로서 외부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었나 하는 것이다. 언론학이 이러한 자생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장차 외부적인 변화에 따라 손쉽게 현재의 위상이 붕괴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언론학은 제도적 위상의 기반을 이론적인 지식에만 두고 있지 않다. 실무적 지식 공급이나 현실과의 밀접한 연관성은 언론학 영역에서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요소가 되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실무적 지식의 전수는 언론학이 대학의 제도적 틀내에서 자리잡게 된 주요한 기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한국 언론학과들의 실무 교육은 실용적 기능이 아주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실무적 지식에 대한 수요는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다. 신문방송학과와의 인기는 상당 부분이 이러한 직업 분야 진출에 대한 기대치에 근거한 것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인기는 불가사의한 측면이 많다. 그것은 노동시장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에 기반한 것인가, 혹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른 일시적인 거품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한국 언론학에서는 실무적 지식을 언론학의 핵심적인 한 영역으로 표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각지대로 남겨두었다. 왜 실무 교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없이 어정쩡한 실무 교육을 유지하고 있는 현 실정은 한국 언론학의 제도적 위상을 잠재적으로 위협할 수도 있는 불안한 요인이 되고 있다.

2) 이론적 영역으로서의 정체성

언론학이 이론적 영역으로서 성장해온 과정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제도화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피터스는 미국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형성 과정을 “민족국가”(nation-states)에 비유해서 설명했다. 커뮤니케이션학은 분야를 정의하는 일관된 이론적, 철학적 지침을 갖추지 못했다. 심지어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정의조차도 모호

해서, 어떤 것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속하고 어떤 것이 속하지 않는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다. 커뮤니케이션이란 용어는 사용자에 따라 아주 폭넓고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 철학적 일관성을 갖는 개념으로 볼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민족주의가 철학적 근거에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고 비철학적 충동에 호소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또한 커뮤니케이션학은 민족주의에서처럼 고정된 영역에 대해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려 하고 다른 민족국가(학문 분야)가 점유하고 있는 영토에 대해서도 자신의 영유권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유사하다는 것이다.⁶⁾

피터스의 지적은 특히 1970년대 한국 언론학의 분야에 대한 정체성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많다. 차배근의 저서에서 볼 수 있듯이, 언론학은 이질적이고 다양한 지식 형태들을 하나의 분야로 종합한 것이다. 분야의 명칭도 신문방송학, 신문학, 커뮤니케이션학, 언론학, 언론정보학 등으로 다양하게 나왔고, 명칭의 채택에 따라 분야의 성격이나 내포적 의미 역시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언론학이 순수한 학문으로 성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론의 여지가 많았다. 갈등과 내분의 소지가 다분한 다양한 지식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게 해준 것은 이론적 논쟁을 통한 수렴이 아니라 제도적 공간, 혹은 분야를 공유하고 있다는 의식이었다. 한국 언론학에서 이러한 영역주의적 사고는 이후에도 변형된 형태로 계속 발견할 수 있다.

가령 1980년대 언론학 내부에서 비판 이론의 성장은 영역주의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비판 이론의 열기는 “주류”에 대한 이론적 대안 모색에서 시작되었지만, 주로 배타적이고 방어적인 영역주의의 양상으로 나타났다.⁷⁾ 이 시기 비판 언론학은 체계적인 학문적 성찰 보다는 차별성의 제도화를 통해 연구 조류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즉 “비판적 연구는 내부의 다양성과 이질성보다는 여러 차원 혹은 요소, 즉 방법론적, 이론적 특성에 있어서 경험적 연구와의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일정한 제도적 공간으로 자리잡는 데에 성공했다.”⁸⁾ 이질적인 접근방식들을 “비판적 연구”라는 제도적 울타리 속에 흡수하는데 치중한 영역화 운동은 구성원에게 정서적

6) Peters, 앞의 논문, pp.546-7.

7) 임영호, “수정주의와 한국의 비판커뮤니케이션 연구,” <한국사회와 언론>, 1호, 1992;
Im, Yung-Ho, “Critical Communication Studies in South Korea,” Journal of Communication Inquiry, vol.17, no.1, Winter 1993, pp.108-123.

8) 임영호, 앞의 논문, 53쪽.

일체감과 귀속감으로 주는 상징 역할을 했고 내부의 재편성, 내부적 자아비판 보다는 영토 확장, 체계화, 계보화에 치중하는 풍토를 조성했다. 사실 적대적 세력간의 대결을 암시하는 전통적 진영과 비판적 진영이란 용어 자체도 군사적 비유에 근거한 것이다. 이 두 진영간의 관계에 대한 묘사는 마치 민족국가내에서 분열된 국가들간의 내전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물론 두 패러다임의 차이를 군사적인 비유로 묘사한 것은 이들의 이론적 정치적 차별화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차별화는 철학적 이론적 일관성을 가지는 기준들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각 집단이 갖고 있는 정체성의 차이에 근거하고 있다. 문제는 이 정체성이 피터스가 묘사한 민족주의적인 정서에 아주 가깝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영역주의적 정체성은 이론적 범주로서 가치를 잃고 오히려 지적 발전의 장애물로 변했다.⁹⁾

한국언론학회에서 '91년과 '92년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 '쟁점과 토론' 행사는 대립적인 두 진영들 사이에 대화와 조정의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¹⁰⁾ 이 행사들은 비판적 시각을 언론학계의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공인하는 분기점의 성격을 띠었다. 이 행사들의 의미는 비판적 패러다임을 학계 내의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제도적 일부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¹¹⁾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이 사건들은 대화와 조정의 형식을 빌어온 갈등 통합의 성격을 띤다. 두 진영의 갈등은 두 진영 내부의 변화를 유도하기 보다는 갈등 자체의 소멸을 가져왔다. 특히 '92년 5월의 쟁점과 토론 행사는 비판 언론학의 위기를

9)같은 논문, 54쪽.

10)김영석, "전통적 입장에서 본 언론학 연구의 인식론 및 방법론에 관한 고찰," 한국언론학회 편, <한국 언론학의 쟁점과 진로>, 서울: 나남, 1991; 방정배, "현대사회의 위기와 진보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진로 모색," 한국언론학회 주최 제8차 '쟁점과 토론' 발표논문집, 1992; 양승목, "탈냉전시대의 커뮤니케이션 연구: 패러다임 수렴과 그 의미," 한국언론학회 주최 제8차 '쟁점과 토론' 발표논문집, 1992; 이효성, "커뮤니케이션학의 인식론과 방법론: 비판적 입장," 한국언론학회 편, <한국 언론학의 쟁점과 진로>, 서울: 나남, 1991, 403-443쪽; 이효성, "비판언론학의 새로운 정향을 위한 시론," 한국언론학회 주최 제8차 '쟁점과 토론' 발표논문집, 1992; 임영호, "수정주의와 한국의 비판커뮤니케이션 연구," 한국언론학회 주최 제8차 '쟁점과 토론' 발표논문집, 1992.

11)강상현, "한국언론학 연구동향에 대한 비판적 평가: 최근의 패러다임 논쟁과 그 불안전 해소를 중심으로," <사회비평> 제10호, 1993, 122-153쪽.

진단하고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시도로서, 여기서는 대체로 비판 언론학이 수정주의적인 정치적 문제의식과 더불어 새로운 이론적, 방법론적 흐름들을 수용하여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변화의 징후는 아직 발견할 수가 없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주목하면서 강상현은 다음과 같이 썼다.

“1991년에 접어들어 비로소 학회 차원의 공식적인 논쟁이 가시화하는 듯하였으나 이러한 논쟁의 열기마저도 사회과학 일반의 ‘포스트’ 신드롬과 외국 언론학계에서의 신수정주의 및 신다원주의 조류 속에서 그러한 공식단상의 논쟁은 발화와 동시에 이내 불길히 가라앉는 하나의 촌극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다. …어떤 면에서 비판적 연구진영은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급진이론이 지나는 현실적 한계나 위기의식을 ‘포스트’의 그늘 밑에서 다소나마 회색시킬 수 있었고, 전통적 연구진영 역시 ‘포스트’의 신조류와 함께 그동안의 수세를 만회할 수 있는 명분을 찾는 듯이 보였다.”¹²⁾

비판 언론학은 이후 외부의 비판들을 수용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데에 실패했고, 국내외의 정세 변화와 학문적 지형의 변화에 따라 정체성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과거 비판 언론학의 영역에 속했던 연구 주제들을 다룬 글들도 점차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80년대에만 해도 예언가적인 확산에 찬 주장들을 폄하던 연구들중 상당수가 새로운 상황에 맞는 연구 주제를 찾아나서거나 이전의 주장들을 거두어들였다. 비판적 연구를 주도했던 대학원생들이나 소장 연구자 그룹들이 학계에 자리잡는 등 제도권에 진입했고 이들의 연구 관심 역시 기존의 연구자들과 차별성이 점차 줄어들었다. 기존 학계와의 차별성을 표방하며 이들이 주도해서 세웠던 한국사회언론연구회가 언론정보학회로 제도화된 것도 이러한 추세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비판 언론학” 혹은 “비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어 역시 점차 언론학자들의 글에서 사라졌으며, 대신에 점차 구체적이고 중립적인 새로운 용어들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 용어들에서는 80년대의 감정적이고 격정적인 함축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제는 80년대 처럼 학문 분야의 구성 과정에서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띠는 격정적인 정체성을 동원하던 시대는 끝났다. 비판 언론학이라는 상징이 주던 철학 외적, 이론 외적

12)같은 논문, 145-6쪽.

인 효용성도 거의 소진되었다.

그렇다면 80년대의 비판언론학은 언론학의 정체성 형성에 어떤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비판 언론학의 등장은 무엇보다도 언론학이 이론적 분과로서 갖는 정체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짚을 수 있다. '91년과 '92년 두 차례의 논쟁이 언론학회 주도하에 벌어졌다는 것은 이 논쟁이 언론학의 중심적인 관심사로 부상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패러다임, 과학철학, 거대이론 등의 추상적인 담론들이 학회의 공식적인 논쟁에서 오갔던 것은 언론학이 당시의 제도적 위상에 걸맞는 학문적 권위 확립에 대한 관심이 성장했음을 말한다.

하지만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집단적인 차원에서 연구 경향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나 거대 이론에 대한 관심, 패러다임 논쟁과 대화는 점차 줄어들고, 학술적 작업은 개별화, 분산화되는 경향이 점차 두드러지게 되었다. 언론 관련 학과의 증설됨으로 연구자 저변층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연구 결과들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다양해지고 풍부해졌지만, 지식의 체계적인 통합, 학문적 조류간의 대화, 거대 담론 등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었다. 말하자면 80년대와 같이 뚜렷한 연구 영역과 조류는 해체되고 다원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90년대 언론학의 영역은 통일된 정체성에 기반한 민족 국가가 아니라 절대적 자치권을 갖는 수많은 소왕국으로 구성된 봉건 체제에 유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90년대에 들어와 인문사회과학 전반에서 거대 담론이 쇠퇴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다. 동구권 체제 붕괴와 한국 사회의 정치적 민주화를 목격하면서, 서구의 이성주의적 세계관에 입각해 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개혁을 표방하는 거대 담론, 가령 계급, 국가 등에 대한 열기가 퇴조하고 대신에 다양한 미시적이고 상대주의적인 이론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언론 문제를 비판적으로 접근하는데 있어서도 국가와 자본, 계급, 노동 등에 집중되었던 주제는 일상생활이나 사용자, 성 정체성 등으로 다양해지고 미시화되었다. 나아가 소비와 일상생활, 미디어 정치, 의미 구성 등 언론학의 주요한 주제들은 주류 사회과학에서도 중심적인 연구 주제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정치학이나 사회학 등 80년대 언론학의 의제 설정에 큰 영향을 미쳤던 학문 분야들이 이제는 언론학의 영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까지 언론학은 기존의 사회과학들이 차지하고 남은 영역들의 틈새를 모아서 구성된 주변적인 학문 영역이라는 자의식을 가지는 경향이 없지 않았

다. 하지만 이제는 언론학이 사회과학 전반에 공통되는 주요 의제를 다루는 주요 영역으로 부상했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은 언론학의 학문적 위상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 효과도 낳았다.

90년대에 한국 언론학은 인문·사회과학에서 중심적인 분과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번성은 언론학의 실제적인 이론적 성취 보다는 외부의 사회적, 학문적 상황에 의해 주어졌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가령 “정보사회”나 “가상공간,” “문화연구” 등 언론학 관련 주제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어디까지나 아직 충분히 실현되지 않은 기대치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은 언론학이 채워줄 것으로 외부에서 기대하는 언론학의 “잠재적”인 영역에 불과하다. 외국의 경우 언론학에서 그 주제들을 관장하고 있다는 것은 학문 세계의 실제적인 권력 과정에서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 어렵다. 언론학이 그 빈 공간을 학술적으로 정당성을 갖는 지식으로 채워 넣을 때야 비로소 그 공간은 언론학의 영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언론학계에서는 언론학의 위상과 성장 가능성에 대해 지나친 낙관론이 퍼져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언론학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학문적 정체성의 문제에 대한 무관심의 징후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신감이 언론학의 실제적인 기여도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언론학에서 각광받고 있는 영역들은 이미 여러 인접 학문 분야들이 헤게모니 장악을 위해 싸우는 각축장이 되고 있다. 특히 80년대 한국 사회과학의 화두를 주도해왔던 사회학은 이제 언론학의 영역으로 적극적인 영역 확장을 시도하고 있고 이미 상당한 전과를 올리고 있다. 장차 언론학이 사회과학에서 다시 주변적인 변방으로 밀려나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언론학의 영역주의는 지금까지 학문적 생존 전략으로서 예상보다 훨씬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언론학의 전성기는 자신의 학문적 역량에 기반하기 보다는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 조성된 경향이 강하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한국의 언론학은 언제 IMF 시대로 빠져들지 모르는 거품 경기를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층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학술적 연구 성과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완만한 것은 혹시 불황기의 한 조짐은 아닌가? 이러한 제도적 위상의 호황기에 필요한 것은 오히려 언론학이 학문 분야로서 또 제도적 공간으로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가 검토하는 자기 성찰적 자세일 것이다.

3. 공식적 지식과 비공식적 지식의 이중구조

제도적으로 볼 때 한국 언론학의 영역은 크게 이론적 지식, 실무 교육, 현실 연관성을 세 축으로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발달된 부분은 바로 현실 연관성을 갖는 지식 부분이다. 오늘날 언론학계의 낙관주의적 분위기는 상당 부분 이러한 지식 수요의 호황에 근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많은 언론학 연구자들이 소모적이고 이론적 기여도가 적은 작업에 많은 시간을 소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개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몇몇 연구자의 개인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연구자층 전반에 걸쳐 보편적인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연 그것은 언론학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불필요한 (혹은 필요한) 세속적인 약에 불과한 것일까, 아니면 한국 언론학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성격인가?

90년대에 들어와서 언론학에서는 이론적으로 공인되는 지식을 선별하고 분류하는데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것은 언론학에서 비학술적인 지식의 호황과 적지 않게 관련이 있다. 1993년에 창간된 <언론과 사회>는 엄격한 사전심사제를 통해 이론적 성향에 관계없이 “이론적 기여도가 높은 학술적 성향의 논문” 게재를 표방하고 나섰는데, 이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다른 학술지들도 잇따라 엄격한 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러한 추세는 점차 강화되었다. 이전에 비해 학술 논문의 발표 참가가 늘어났음에도 이론적 경향에 따라 학술지의 분화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논문으로 발표되는 지식의 질적 권위의 확립과 이러한 권위 부여 과정을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제도적인 위상이나 연륜으로 보아 성장과 호황기를 맞고 있는 학문 분야에서 학술적 순수주의를 표방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신선하게 받아들여진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현상을 낳게 한 결정적인 물질적 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변화는 여러 가지 한정적인 상황들에 의해 구조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순수한 학술적 연구의 강화는 YS 정권이 소위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대학 평가 정책의 효과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또한 이러한 변화는 언론학계가 그 동안 학술적이지 못한 지식들을 양산하는 데 몰두해 왔다는 비판과 자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즉 <언론과 사회>가 내세운 노선은 언론학의 이론적 정체성을 어떻게 정

립해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지적 자각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언론학의 학문적 존재 근거에 대한 ‘도덕적’ 위기 의식에서 비롯 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이론적 지식의 축적을 존재 근거로 삼는 학문 담론의 기준에서 볼 때, 학술적 순수주의의 표방은 학문 세계의 상식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데 불과할지 모른다. 하지만 순수한 이론적 성과의 축적을 표방한 것은 언론학에서 이론적으로 형식적인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지식들이양산되고 있음을 전제한다. 또한 이것은 지식 권위의 위계를 설정하는 가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언론학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한 가지 정의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학문 세계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지식들을 선별하고 공인하는 제도적 메카니즘을 정착시킴으로써, 다른 학문 분야와 유사한 이론적 실체의 형식에서 언론학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것이다.

이러한 권위 부여 메카니즘은 학술적인 “형식”을 갖춘 지식을 정당성 있는 지식으로 공인하면서, 질적으로 떨어지는 이론적 지식 뿐 아니라 비학술적 형태의 지식들을 공인된 지식에서 배제한다. 물론 이러한 기준에 대해 의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 판단할 때, 언론학자의 노동중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공식적인 지식의 존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학술적인 형식과 기준에 의해 인정받는 지식과 받지 못하는 지식 형태를 편의상 각각 “공식적 지식”과 “비공식적 지식”으로 정의한다. 한국 언론학계에서 비공식적 지식에 속하는 것으로는 몇 가지 유형들이 있다. 현실에 대한 비판, 참여의 목적으로 혹은 외부 기관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소위 시사적 성격의 “잡글”이나 프로젝트 연구보고서, 행사 발제문 등-생산될 수도 있다. 특히 언론학 분야에서 한국방송개발원이나 통신정책연구원, 한국언론연구원 등의 국책 연구기관들이 주도하는 연구의 비중은 엄청나게 커졌다. 하지만 이러한지식의 수요자 혹은 공급자가 “제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진보적 기관이나 세력(노조, 운동단체 등)과 연관을 맺기도 했고 드물기는 하지만 강준만의 〈인물과 사상〉처럼 독립적인 채널을 통해 현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새로운 형식의 가능성을 보여준 경우도 있다.

언론학에서는 이러한 비공식적 지식을 정당성있는 지식의 영역에서 배제해왔다. 대부분의 연구자들 역시 지식 생산 활동에서 두 가지 부류의 지식 활동을 비교적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 처럼 보인다. 즉 하나는 생산적인 연구 활동으로 보고 다른 비

공식적인 지식은 불가피한 작업, 소외된 노동으로 간주하는 분류 기준을 유지해왔다. 또 학계에서는 비공식적인 지식 활동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을 학자적 건강에 해로운 활동으로 규정하는 도덕적 기준을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표방해왔다.

말하자면 언론학자가 생산하는 지식은 공식적 지식과 비공식적 지식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지식의 이중구조는 한국 사회에서 언론학이 갖는 학문적 특수성을 엿보는 단서를 제공해준다. 그것은 바로 언론학이 현실과 특히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현실과의 거리를 어떻게 어떤 형태로 설정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어떤 지식이나 지식에 대한 정의 방식은 이론적 가치 뿐 아니라 권력의 측면도 가진다. 어떤 지식은 지식으로서의 권위 위계내에서 평가받는 동시에 현실적인 권력의 위계 내에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현실적인 권력 자원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러한 자원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권력의 측면과 관련을 맺는 것이다. 물론 이 두 가지 차원이 엄격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실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만들어진 지식이라도 이론적인 지식의 위계내에서 위치를 인정받는 학술적 작업의 형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

언론학에서 이 두 가지 측면은 언론학의 정체성을 설정하는 데에서 핵심적인 문제 이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지식들의 의의를 평가하는 잣대 역할을 하고 있다. 언론학에서 지식의 이중구조는 이 두가지 성격중의 하나만을 극단적으로 갖는 두 가지 이념형적 지식 유형들(즉 공식적 지식과 비공식적 지식)의 분화가 구조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비공식적 지식은 현실의 권력 자원(정보, 자원, 영향력)에 근접해 있으면서도 이러한 차원에 관한 이론적인 이해에 까지 이르지 못했거나, 학술적 형식의 지식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미완성의 지식 형태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한국 언론학에서는 비대해진 비공식적 지식 부문에 비해 공식적 지식 부문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것은, 언론학의 현실 연관성이 극도로 왜곡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 언론학에서 비공식적인 지식의 양산과 비대화는 개별적인 언론학자들의 도덕적인 문제의 차원에서만 파악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그보다는 한국 언론과 언론학에서 지식 생산의 권력 과정이라는 구조적인 맥락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언론학자들의 일상적 대화에서는 도덕적 담론을 동원해 비공식적인 지식의 팽창을 저지하고 배재하려는 태도를 흔히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이러한 엄격한 도덕적 배제 전략이 이

론적 순수성의 영역을 점차 확대시키고 비공식적 지식의 영역을 불가피한 최소한의 정도로 축소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잠재해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이원적 구조는 당분간 사라지기어려울 것이다. 싹튼 좋은 언론학 연구는 현실적인 권력 자원과 세력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고 지식의 권력 차원과 현실 연관성은 언론학의 정체성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한국 언론학에서 지식의 이중구조의 저변에는 지식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 잣대와 비공식적인 선호 잣대의 이중 구조가 잠재하고 있다. 즉 공식적으로는 지식 권위의 위계가 단일한 기준으로 표방되고 이론적 지식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나, 비공식적으로는 지식 권력의 잣대가 지식의 의제 결정과 생산, 배포 구조를 좌우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잣대는 한국 사회에서 지식 생산의 권력 지형을 독특한 형태로 만들었다. 즉 이론적 지식에 대해서는 “도덕적 중심화”를 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에서의 주변화”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이중적인 잣대는 비공식적인 지식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지식들을 이론적으로 중요하지 않고,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식 세계에서 도덕적 책임을 면해주는 면죄부 부여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한국 언론학에서 지식에 대한 정의와 평가는 불가피하게 권력 과정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언론학에서 이러한 평가와 선호 잣대의 이중 구조는 구체적인 지식 생산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권력 분포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즉 화계의 중심부와 주변부, 기성세대와 소장, 서울과 지방 등 다양한 권력 분포의 축에 따라 (상대적 자율성을 갖기는 하지만) 중첩되어 표현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독특한 이중구조의 저변에는, 최종적인 결정력을 가지지는 않더라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 경제적 구조가 존재한다. 한국 언론학에서 비공식적 지식에 대한 많은 수요는 엄격한 의미에서 지식 시장의 수요에 입각한 것이 아니며, 이 지식에 대한 가치 평가 역시 시장(미디어 산업)에서의 경제적 가치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언론 문제에 대한 열기와 비공식적인 형태의 지식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우선 미디어 산업에서 조성된 잉여 이윤으로 운영되는, 즉 시장에서상대적 자율성을 갖는 미디어 관련 공공 기관들의 존재를 들 수 있다. 이 기관들에서는 경제적 효율성과 생산성이 조직의 주된 목표가 아니며 여기서 지식 생산이란 기존의 제도적

관행을 재확인하는 '의례(ritual)'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언론학의 비공식적 지식에 대한 엄청난 수요는 시장의 논리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 이러한 조직들의 필요성에서 유래한 것이다. 물론 미디어 산업의 시장 부문(특히 방송 부문)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지식에 대한 수요를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비슷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즉 한국의 방송 산업은 국가 주도의 독과점적인 시장 구조를 하고 있어 시장 경쟁의 압력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따라서 경제 외적인 정치적 요인들도 조직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 언론학에서 비공식적인 지식의 수요와 공급 과정은 시장의 비유 보다는 정치 과정을 더 많이 닮고 있다. 어떤 점에서 한국 언론학이 비공식적 지식 생산을 통해 확보하고 있는 영향력과 권력 자원은, 현실에 대한 영향력이라기 보다는 언론을 둘러싼 정치과정에서 수행하는 '상징적'(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기능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미디어 산업이나 미디어 관련 공익 기관에서는 언론학의 현실 분석과 대안 제시 능력에 대해 극도의 냉소주의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학의 지식에 대한 높은 수요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 현실적으로 신문방송학과가 미디어 산업의 인력 공급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종가를 구가하고 있는 것도 아마 권력 자원에 대한 언론학의 근접성, 혹은 언론학의 상징적 권력성 때문은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해볼 수 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언론'이라는 단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 '권력'이라는 함축적 의미를 강하게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만일 언론학의 비공식적 지식에 대한 수요가 이같이 비시장적인 정치 과정에 근거해 있다면, 오늘날 전성기를 맞고 있는 언론학의 위상 역시 상당 부분 거품에 해당하는 셈이 된다. 즉 언론학의 비공식적 지식의 호황은 언론학의 현실 분석과 대안 제시 능력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 있으며 언론학의 위상은 외부의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쉽게 붕괴할 수도 있는 허약 체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 언론학계가 이러한 허약 체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학의 이론적 순수주의 운동은 정당성을 갖긴 하지만, 주로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언론학의 도덕적 정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학 전반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4. 비공식적 지식의 님은 꼘로서의 공식적 지식

그렇다면 한국 언론학의 학술적 담론에서 배제된 비공식적인 지식은 공식적 지식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지식에 대한 정의는 서로 유사성과 연관성을 갖는 지식들중에서 일종의 배제 전략을 통해 특정한 지식 형태를 선별해내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포함된 지식과 배제된 지식 사이에는 차별성 못지 않게 유사성이 남아있을 수 있다. 언론학의 공식적 지식은 비공식적 지식의 어떤 점을 님고 있는가? 특히 국책 연구기관이 생산하는 지식들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이 지식의 성격과 그것이 언론학의 정체성에 미친 영향을 검토해본다.

언론 관련 국책 연구 기관들은 비공식적인 지식의 주된 생산자였을 뿐 아니라 언론학의 공식적 지식 부문의 정체성 형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이 기관들은 대학 소속의 일반 연구자들에 비해 최신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권과 월등한 연구 자원들을 확보함으로써 언론학의 지식 생산 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왔다. 국책기관들은 자체적으로도 활발하게 지식 생산을 하면서, 외주 발주 등을 통해 외부 연구에 대한 수요도 창출해냈다. 이 기관들에서 생산된 정보와 지식들은 언론학이 전문적인 지식 분과로 위상을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 기관들은 월등한 자원 동원을 기반으로 지식 생산의 의제 설정을 주도함으로써 언론학의 정체성을 특정한 방향으로 구조화하는 데에도 적지 않게 기여했다. 이러한 제도적 지식 생산 구조의 문제는 단순히 연구 시각과 결과의 편향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특히 매체 단위로 분업화된 국책 연구 기관의 지식 생산은 언론학의 지식 분업 구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90년대에 들어와 언론학계에서는 연구자들이 매체 단위(신문, 방송, 뉴미디어 따위)로 자신의 연구 분야를 설정하는 분업 구조가 정착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매체 단위로 연구자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연구자 역시 이에 맞추어 자신의 연구 분야를 포지셔닝하기 시작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풍토 조성에서 국책 기관들의 지식 생산 방식이 적지 않은 기여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매체 중심적인 사고가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향을 가속화시킨 것은 국책 기관들의 독특한 연구 수행 방식이다. 이 기관들은 특히 특정한 매체에 관해 수집한 방대한 최신 정보를

토대로 연구물들을 배출해냈다. 언론학자들에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방대하고 생생한 정보들은 이 연구물에 권위를 부여하는 듯했고, 이는 곧 연구자들 사이에 정보에 대한 집착을 낳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매체 중심적 사고와 연구 경향은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 우선 정보와 지식을 혼동하면서 자신의 영역인 매체에 관한 지식을 학문적 권위의 근거로 삼으려는 듯한 경향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매체에 관한 지식과 정보 축적이 이론적 발전과 반드시 큰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현실에 대한 이론적, 비판적 인식은 현실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성찰적인 자세를 전제로 한다. 현실에 대한 생생한 정보와 경험을 접한다는 것은 자칫 그러한 경험이 현실에 대해 일면적으로 구조화된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망각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매체 중심적 사고는 최신 정보에 대한 집착, 특히 해외의 최신 동향과 외국 사례들을 의례적으로 인용하고 거기에서 주장의 근거를 찾는 듯한 아주 독특한 풍토를 낳았다. 특히 실용적, 정책적 함의를 증시하는 비공식적 지식에서 외국 사례에 대한 의존 풍토는 아주 두드러졌다. 이러한 대외 의존 방식은 정책적 주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 제시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기능도 했다. 이러한 관행은 실용적, 정책적 지식 부문에 속하는 정책 보고서에서 전형적으로 발견할 수 있지만 학술적 연구에서도, 형태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언론학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비공식적 지식 부문의 성격과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자리매김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대다수의 언론학자들은 상당히 부정적이고 배제적인 자세를 표방했다. 그러나 언론학자들의 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비공식적 지식 부문은 한국 언론학의 독특한 정체성을 낳는 구조적과정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언론학 발전의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순수하게 이론적 연구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한국 언론학계에서는 현실의 권력 자원에 부분적으로 의존하거나 세력들과 연관을 맺지 않고는 현실과 괴리되지 않은 연구를 수행해나가기 어렵다. 한국 사회에서 비공식적 지식들은 현실 연관성이 아주 높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연구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순수한 연구에 비해 잠재적인 힘이 크다. 하지만 이론적 권위와 지식 권력을 통합한 지식은 활발히 나오지 않고, 두 가지는 공식적 지식과 비공식적 지식으로 분리되어 소외된 형태로

만 나타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초창기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와 같은 “정책 과학”(policy science) 혹은 “행정적 연구”¹³⁾(administrative research)가 정착된 적이 없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외부 기관의 수요와 자원에 의존해 실용적이고 정책적 성격의 지식을 만들었고, 이 점에서 이후에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지식들은 이후 분야의 발전에 토대가 되는 학술적 지식의 형태로 정리되어 나왔다. 이 지식들은 외부에 종속적인 위치에서 생산되었으면서도 학술적 완결성 때문에 어느 정도 현실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정책적 지식들은 더 큰 자원들을 동원하면서도 단순히 불가피한 노력으로만 간주되고, 작업 결과 역시 곧 폐기되는 악순환을 겪어왔던 것이다. 싹튼 좋은 한국의 언론학은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비공식적 지식과 공식적 지식간의, 또 비공식적 지식 부문에서의 왜곡된 수요 공급 구조는, 이러한 전략적 위치가 언론학의 현실적 영향력이나 학문적 성장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국 언론학의 밀접한 현실 연관은 오히려 언론학의 학문적 정체성에 손상만 입힐 수도 있다. 이는 언론학의 현실 연관성 혹은 현실 참여 기능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5. 언론학의 현실 연관성: 비판 언론학의 경우

비판 언론학은 다른 연구 영역에 비해 현실과의 연관성(현실 참여)을 연구의 본질적인 성격으로 표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실 연관성은 외부적으로 뚜렷이 드러나기 보다는 이론이 가지는 함의의 형태로 나타난다. 한국의 비판 언론학은 실천적 성격을 어떻게 설정해왔고 이러한 성격은 영역의 정체성 형성에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80년대에 두드러졌던 비판 언론학의 ‘영역’은 90년대에 들어와 급속히 해체되는 듯했다. 정치경제학이나 노동, 계급, 국가 등 이전의 딱딱한 주제들 대신에 문화와

13) Lazarsfeld, P., “Remarks on Administrative and Critical Communication Research,” *Studies in Philosophy and Social Science*, vol.9, 1941, pp.2-16.

즐거움, 정체성, 수용자 등 정치적으로 좀더 연성의 주제들이 새로운 화두로 각광받기 시작한 것이다. 80년대에 왕성하게 논의되었던 미완성의 연구 주제들은 한꺼번에 폐기되다시피 했다. 이러한 변화는 이론적 정치적 맥락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비판 언론학의 특징이었던 영역주의의 성격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비판 언론학 영역이 해체되기 시작하면서, 예전 처럼 배타적이고 열정적인 정체성을 토대로 한 영역주의는 희석되었다. 그 대신에 훨씬 완화되고 완곡한 '소재 중심주의'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이전의 영역주의와 공통점을 가진다. 특히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하고 이론 중심주의의 경향은 주목할 만한 특징들이다.

그동안 비판 언론학에서는 이론이 현상에 대한 접근방식을 제공하는 도구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연구 영역으로 둔갑하는 경향이 많았다. 마치 매체 단위의 영역 구분처럼 이론 역시 새로운 영역 구분의 기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단순히 외국의 이론을 읽고 정리해서 소개하는 작업이 권위있는 지적 작업으로 둔갑하는 경향조차 때때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은 물론 어떤 주제나 이론이 도입되는 초기의 일시적인 현상이라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비판 언론학의 초기에 까지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는 뿌리깊은 관행이다. 1980년대의 경우를 보더라도 "비판적 영역에 속하는 많은 연구들이 서구의 (주로 '최신'의) 이론적 논의들을 개념적으로 거론하면서 주제를 확장하는 데 치중했고, "어떤 이론이 '도입'되고 난 후 후속적인 연구를 통한 비판, 검토가 누적되기 보다는 끊임없이 새로운 영역과 주제를 찾아 헤매는 경향"도 보였다.¹⁴⁾

이러한 '새로움'의 독재는 비판 언론학의 이론적 발전에 적지 않은 피해를 가져왔다. 이론은 속성상 항상 새로운 소재를 찾아나서고 특히 시대적인 조류에 민감한 경향이 있다. 이론은 추상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 함의나 현실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더구나 이러한 검토와 재구성의 작업은 이론 세계의 논리와 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더욱 힘겨운 것이다. 현실의 미묘한 변화를 읽어내고 이론에 반영하는 작업은 화려하지 못하면서도 고통스러운 작업이다. 80년대의 많은 이론적 작업들은 현실의 사회적 모순에 대한 인식과 개혁의 중압 때문에 현실을 지나치게 도식화시키고 이론적 정교함을 갖추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14) 임영호, 앞의 논문, 56-7쪽.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90년대의 비판 언론학에서는 이러한 미완성의 분석틀을 개선하고 정교화시키는 작업 대신에 새로운 틀을 찾아나서는 길을 택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는 어떤 면에서는 비판 언론학을 화려한 이론적 수입품의 전시장으로 만드는 부작용도 가져왔다. 많은 학자들은 자신의 이론적 근거와 연구 분야의 정체성을 해외의 지적 조류에서 찾고 그러한 조류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강상현의 지적처럼 한국의 언론학은 “현실에 조응하는 치열한 이론투쟁을 통해 학문적 성숙과 계열화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국내외의 상황 변화나 외국의 이론동향에 준거하여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의탁하는 관행”¹⁵⁾을 드러냈던 것이다.

소재 중심주의는 주로 외국의 이론적 유행에 민감한 독특한 형태의 이론 중심주의로도 나타났다. 비록 많은 학자들이 “거대 담론”의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했지만, 아직도 우리 학계에서는 추상적인 논의를 좋아하는 지적 풍토가 남아 있다. 이러한 이론 중심주의의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이론에 대한 논의가 곧 현실이라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그로스버그(Grossberg)는 “과거의 비판적 연구들이 이론적 범주 자체를 마치 현실의 완벽한 재기술인 것처럼 생각해온 경향”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¹⁶⁾ 국내의 문화연구에 국한시켜 보더라도 “문화연구자들이 그간 수행해온 작업의 상당 부분이 바로 엄격한 의미에서의 문화연구였다기 보다는 문화이론 그 자체 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¹⁷⁾ 추상적 이론들의 숲을 헤매는 연구자들은 추상적 언어 배후에 있는 보다 거시적인 그림과 문제의식을 읽어내기가 쉽지 않다.

이론주의에 대한 비판은 단지 논의의 수준이 추상적이냐 혹은 구체적이냐 하는 추상화 정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된다. 대신에 왜 특정한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다른 문제들은 제기되지 않게 되는 문제 제기의 맥락, 즉 “문제를 (problematic) 자체의 적합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거친 이론만이 한국 사회에서 적합성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론 중심의 소재주의에서는 이러한 비판적 작업 대신에 자신의 이론 영역에 대한 친화적인 태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가령

15)강상현, 앞의 논문, 136쪽.

16)Grossberg, Lawrence, “Cultural Studies: Definition, Project, and the Issue of Globalization,” “나의 문화연구: 정의, 기획, 그리고 지구화의 문제,” <언론과 사회> 18호, 1997년 겨울호, 128쪽.

17)마동훈, “문화이론, 문화연구 그리고 미디어 연구,” <언론과 사회>, 18호, 1997, 181쪽.

왜 문화연구자중에서 문화연구의 문제를 자체에 대한 비판을 보기 어려운가? 어쩌면 자신의 영역이 갖는 존재 의의, 근거를 비판하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무의식적인 우려에서 나온 것은 아닐까? 현실에의 적합성을 존재 이유로 삼는 비판 언론학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자기 성찰적 자세가 필수적이다.

어떤 이론의 문제들에 대한 검토는 이론적 문제이면서도 동시에 그 이론의 실천적 함의가 얼마나 현실에 적합한가 하는 문제이다. 오늘날 이론적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문화연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살펴본다. 80년대 비판 언론학의 문제들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사회적 쟁점들을 문제삼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 언론학은 왜 그렇게 손쉽게 붕괴하게 되었는가? 80년대의 비판 언론학은 현실의 압박에 대한 강박 관념 때문에 이론적 역량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정치적 과제를 떠안았다고 할 수 있다. 현실에 대한 실익은 진단과 대안 제시는 이후 외부의 도전에 대해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 취약성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90년대에 들어와 비판 언론학이 급격하게 퇴조한 것은 어쩌면 이러한 역량 부족에서 기인한다 할 수 있다.

90년대에 들어와 활발해진 문화연구는 비판 언론학의 빈 공간을 급속히 메워나갔다.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후기 구조주의 이론의 영향으로 비판 언론학에서도 연구 주제가 전반적으로 연성화되었다. 이제 이데올로기나 지배성의 개념은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것 처럼 간주되고, 성 정체성, 욕망, 즐거움 등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영역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많은 문화연구자들은 수용자들 (특히 주변화된 집단들)의 문화적 경험, 가령 '즐거움'에서 저항과 체제 도전의 잠재력을 찾아내어 부각시키려 한다. 이전의 비판 언론학에 비교해 볼 때, 문화연구의 매력은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함의는 가지면서도 이론적 세련됨을 동시에 갖추었다는 것이다. 비판 언론학이 해체되면서 생겨난 빈 공간을 문화연구가 비교적 손쉽게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독특한 이론적 매력 때문일 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화연구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비판 언론학에서는 이론의 후광에 의존해서 정치적 함의의 문제를 지나칠 정도로 안일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 문화연구에서 인과 관계나 결정성-그것이 경제적 토대이든 텍스트나 이데올로기이든-의 문제는 이론적으로 마치 시대착오적인 것처럼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보다 비결정론

적이고 비환원론적인 이론들을 지향하는 것이 유행하면서 관찰과 이해를 토대로 하는 ‘해석학적’ 유형의 지식이 득세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특정한 ‘지식의 논리’의 선택은 이론적 문제일 뿐 아니라 강력한 정치적 함의를 갖게 된다.

“지식의 수사학” 이론을 체계화한 페퍼(Pepper)나 화이트(White)는 이 점에서 많은 함의를 주고 있다.¹⁸⁾ 이들은 다음 표와 같이 지식의 논리들을 유형화하면서 지식의 유형간에는 선형적인 우열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선택된 지식 유형마다 독특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모델에 대한 함의가 잠재해 있음을 보여주려 했다. 여기서 “포미즘(formism)은 “연구 대상들에 특유한 속성들”¹⁹⁾ 을 찾아내는 데에 지식 추구의 목적을 두는데, 이러한 지식 논리는 문화연구에서 아주 보편화된 것이다. 반면 “메카니즘”(mechanism)적인 지식 이론은 “어떤 과정의 결과물을 결정하는 인과적 법칙의 발견”²⁰⁾ 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비판 언론학에서 정치경제학적 이론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두 지식 유형이 상당히 다른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가진다는 점이다. 어떤 지식 이론의 선택은 곧 정치적 이념적 모델의 선택이기도 함을 비판 언론학에서는 감안해야 할 것이다.

(표1) 지식의 유형과 정치적 함의

주장 전개의 방식	이데올로기적 함의
포미즘(Formist)	아나키즘(Anarchist)
메카니즘(Mechanistic)	급진주의(Radical)
유기체주의(Organicist)	보수주의(Conservative)
맥락주의(Contextualist)	자유주의(Liberal)

출처: White, 1973, p.29.

물론 문화연구의 새로운 이론들이 비판적 연구자들에게 권력이나 지배성의 문제를 보다 이론적으로 정교하고 유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점은 인정할

18)Pepper, S. C., World Hypotheses: A Study in Evidence, Berkeley: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6; White, H., Metahistory: The Historical Imagination in Nineteenth-Century Europ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3.

19)White, 1973, pp.13-4.

20)같은 책, p.17.

만하다. 특히 이전의 비판이론에서 핵심적 비중을 차지했던 권력의 문제를 단순히 계급이나 국가와 같은 제도적 틀을 넘어서 일상성이나 사회적 실천과 연결시켜 파악함으로써, 실천적 대안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은 역시 높이 살 만하다.

문제는 국내에 문화연구가 정착되면서 원래 문화연구가 가졌던 정치적 함의마저도 크게 희석되고 말았다는 점이다. 가령 국내에 많이 수입된 영국 문화연구의 예를 보더라도 국내에서는 상당히 일면적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령 원용진은 “우리나라에서 문화연구가 소개될 때 문화연구의 거시적인 면과 미시적인 면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미시적인 면이 먼저 소개됨으로써 ‘문화연구=능동적 수용자론=수정주의’라는 희안한 등식이 만들어졌다”고 개탄하고 있다.²¹⁾

수용자 중심의 문화연구는 사회경제적 구조와 텍스트의 결정성(지배구조)을 강조하던 데에서 벗어나 점차 수용자의 주관적 경험과 능동적 역할을 높이 평가하는 쪽으로 초점을 옮겨 갔다. 지금까지 좌파 문화이론가들이 대체로 수용자들의 정치적 잠재력을 회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던 데 비해, 수용자 연구자들은 대중적 취향과 즐거움에서 사회적 변혁의 잠재력을 발견함으로써 수용자의 정치적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수용자 중심의 문화연구는 맥기건(McGuigan)의 표현을 빌리면 문화연구의 비판적인 성격을 급속히 감퇴시키는 “문화적 포퓰리즘”(cultural populism)에 흐르는 경향이 있다.²²⁾ 문화연구는 급진적인 수사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용자의 대중성을 정당화시킴으로써 원래 저항하고자 했던 억압적 문화 권력에 대해 결과적으로 동의를 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어떤 의미에서 이들의 주장은 경제적 자유주의의 ‘소비자 주권론’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²³⁾

문화이론은 과거 좌파 문화이론가들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었던 정치적 패배주의와 엘리트주의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결과적으로 대중적 투쟁의 장을 시청자의 거실로 후퇴시킴으로서 비판 이론을 미시화시켰다. 문

21) 원용진, “문화연구와 맑스주의,” 〈한국사회와 언론〉, 5호, 1995, 30쪽.

22) McGuigan, J., *Cultural Populism*, London: Routledge, 1992.

23) 같은 책, p.245.

화주의에 많은 영향을 준 그람시주의는 특히 공공 부문의 지배와 저항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함의를 줄 수 있다. 하지만 문화주의에서는 그람시주의를 주로 텔레비전 수용자의 의미 투쟁이라는 안방 정치, 즉 앙(Ang)의 표현을 빌리면 “거실의 전쟁”²⁴⁾ (living room wars)의 차원으로 전락시켰다. 김성 의 지적대로, 문화연구에서 저항에 대한 강조는 “실제 정치적 효과를 갖기보다는 현실의 모순에 대한 상상적 차원에서의 해소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²⁵⁾

군사적 비유를 들자면 문화이론은 문화 영역의 지배 체제에 대한 수용자 차원의 “게릴라 전”의 전략을 이론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아마도 공적인 영역과 문화 생산 영역, 국가 기구가 보수 안정화된 서구 사회의 지형에 적합할 것이다. 이러한 지형을 염두에 둔듯 문화연구는 대중문화의 수용자들이 문화의 생산과정을 지배할 수는 없지만 그 소비과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알튀세르(Althusser)의 표현을 빌리면, 문화연구자들은 소비의 영역이 지배체제중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²⁶⁾ (weakest link)라고 인식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생산의 영역, 국가와 시민사회 영역의 헤게모니 체제가 극도로 불안정하여 정치적 각축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따라서 소비 영역에서의 문화적 게릴라 전략 역시 한국의 문화 지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는 하겠지만, 반드시 최선의 전략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군사적으로 보더라도 게릴라전은 동원 자원이 제한된 경우에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전략이지 어떤 상황에서나 최선의 전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문화이론의 이러한 문제점은 외국의 이론들을 수입하고 소개하는 과정에서 주로 이론적인 측면에만 치중하면서 그 이론이 한국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 함의를 갖는지, 그 이론의 정치적 문제점이 한국 상황에 적합한 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문화연구는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문화 생산 영역에 대한 관심을 퇴조시키는 데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제도 정치권의 민주화와 더불어 국가나 시민사회 영역의 전략적 중요성과 역할은 이전의 권위주의 정권에 비해 오히려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문화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제들에 관해

24)Ang, I., *Living Room Wars: Rethinking Media Audience for a Postmodern World*, London: Routledge, 1986.

25)김성기, “문화연구와 포스트모더니즘,” <한국사회와 언론>, 5호, 1995, 72쪽.

26)Althusser, L., *For Marx*, London: Verso, 1977, p.94.

서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다.²⁷⁾ 어떤 의미에서 문화연구는 이러한 부문의 작업의 허망함을 상기시켜 주는 기능도 한 셈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문화연구의 계보와 문제점을 파헤치는 데에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연구의 정치적 함의의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들이 가진 문제점이 영역주의의 징후와 얽혀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화연구는 문화와 수용자의 문제를 인문사회과학의 중심적인 담론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언론학의 새로운 소재 개발의 차원을 넘어 언론학의 위상을 크게 신장시켰다. 이 점에서 문화연구는 언론학의 영역 확장 시도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을 만하다. 하지만 실천적 함의를 중시하는 비판 언론학의 입장에서 볼 때, 문화연구의 기여에 대한 평가는 아직 유보적일 수밖에 없다. 정치적으로 볼 때 문화연구는 비판 언론학의 현실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의 축소를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게 한 셈이다. 어쩌면 문화연구는 '소재 중심주의'의 공과를 동시에 보여준 사례일지도 모른다.

6. 맺는 말

엄격한 의미에서 학문의 세계에는 경계가 있을 수 없다. 오늘날 학문 분야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는 현실적인 편의상, 혹은 사회적인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적 장치에 불과하다. 학문 분과의 혹은세부 분과들의 영역주의는 지식의 생산과 전수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영역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지적 성찰에 기초한 것이라기 보다는 제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형식주의와 현실적인 편의주의로 흘러서 학문 분야의 지적 발전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언론학에서 영역주의에 근거한 학문적 정체성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뿌리내린 것이다. 한국의 언론학은 학술적 담론이 지배하는 대학내에서 이론적 지식 뿐 아니라 비학술적인 실용적 지식 등 이질적인 지식 영역을 묶어서 생겨났기 때문에, 자연히 제도적인 틀의 차원에서 영역의 정체성을 정립하게 되었다. 언론학이 초창기 시절과는 달리 최근 호황을 누리게 되면서 영역의 정체성 문제에 대한 고민은 점차 사라지

27) 몇몇 예외적인 연구들중의 하나로는 강명구, 박상훈, "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 '신한국'에서 '세계화'까지," <한국사회학>, 31집, 1997년 봄호, 126-61쪽.

게 되었다. 하지만 언론학의 제도적 위상은 실용적 지식에 대한 사회적 수요나 언론학의 지식 공급 능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에 상당한 취약성을 안고 있다.

학술적인 지식 영역으로서의 언론학은 마치 민족국가처럼 뚜렷한 영역주의에 정체성의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 역시 일관된 철학적, 지적 원칙에 근거한 것이라기 보다는 학술 활동의 형식적 절차나 제도적 공통점에 근거한 것이다. 영역주의적 경향은 80년대의 비판 언론학에서도, 오늘날 이론적 소재중심주의에서도 계속 발견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언론학은 다양한 형태로 현실 세계와 연관을 맺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산된 방대한 지식들은 언론학의 이론적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소모적인 비공식적 지식의 행태로 계속 재생산되고 있다. 한국 언론학의 현실 연관성은 한쪽으로는 현실의 권력 자원으로부터 분리된 순수한 이론적 지식 부문이 존재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권력 과정에 근접해 있으면서도 이론적 지식으로 발전되지 못한 비공식적 지식이 존재하는 이중구조로 이어지는 왜곡된 형태로 나타났다. 한국의 언론학은 현실의 정치과정에 근접해 있어 이론이 현실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전략적 위치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형태의 이중구조는 언론학이 현실 분석과 대안 제시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하는 취약한 구조를 낳았다.

영역주의는 언론학의 현실 연관성의 성격을 적지 않게 왜곡시켰다. 가령 비판 언론학에서 영역주의는 새로운 것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하고 이론 중심주의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자들은 외국의 이론적 유행에 민감한 이론적 소재주의에 젖고 새로운 이론의 매력과 추상성에 휩쓸려, 이론의 배후에 있는 보다 거시적인 그림과 문제의식을 읽어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그 결과 비판 언론학에서 핵심적이라 할 이론의 정치적 함의나 한국 상황에서 문제들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작업을 게을리하는 풍토가 조성되기도 했다.

오늘날 한국의 언론학은 제도적 영역으로서 또 이론적 영역으로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언론학은 제도적 영역으로서 급격히 팽창하면서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와 거품을 안고 있다. 이론적으로도 오늘날의 새로운 지적, 사회적 지형은 언론학에 보다 많은 기여를 요구하고 있고 언론학이 채워주어야 할 지적 공간은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제도적 위상에 비교해볼 때, 한국 언론학의 역량은 이론적으로나 제도적 영역으로서나 역량이 아직 매우 취약하다. 더구나 이러한 언론학의 현상에 대한 검토나

정체성 문제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앞으로 언론학의 제도적 위상에 차 있는 거품이 빠지고, 정체성의 위기가 다가오기 전에, 과연 언론학이 이론적 지식 분야로서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하는지, 이론은 현실과 어떤 연관성을 가져야 하는지 등의 문제에 대해 반성해보는 자기 성찰적 자세가 절실하다.

<참고 문헌>

- 강명구, 박상훈, “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 ‘신한국’에서 ‘세계화’ 까지,”
《한국사회학》, 31집, 1997년 봄호, 126-161.
- 강상현, “한국언론학 연구동향에 대한 비판적 평가: 최근의 패러다임 논쟁과 그 불완전 해소를 중심으로,” 《사회비평》 제10호, 1993, 122-153쪽.
- 김성기, “문화연구와 포스트모더니즘,” 《한국사회와 언론》, 5호, 1995.
- 김영석, “전통적 입장에서 본 언론학 연구의 인식론 및 방법론에 관한 관찰,”
한국언론학회 편, 《한국 언론학의 쟁점과 진로》, 서울: 나남, 1991.
- 마동훈, “문화이론, 문화연구 그리고 미디어 연구,” 《언론과 사회》, 18호, 1997.
- 방정배, “현대사회의 위기와 진보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진로 모색,” 한국
언론학회 주최 제8차 ‘쟁점과 토론’ 발표논문집, 1992.
- 양승목, “탈냉전시대의 커뮤니케이션 연구: 패러다임 수렴과 그 의미,” 한국언론
학회 주최 제8차 ‘쟁점과 토론’ 발표논문집, 1992.
- 원용진, “문화연구와 맑스주의,” 《한국사회와 언론》, 5호, 1995.
- 이효성, “커뮤니케이션학의 인식론과 방법론: 비판적 입장,” 한국언론학회 편, 《한
국 언론학의 쟁점과 진로》, 서울: 나남, 1991, 403-443쪽.
- 이효성, “비판언론학의 새로운 정향을 위한 시론,” 한국언론학회 주최 제8차 ‘쟁점
과 토론’ 발표논문집, 1992.
- 임영호, “수정주의와 한국의 비판커뮤니케이션 연구,” 《한국사회와 언론》, 1호,
1992.
- 임영호, “수정주의와 한국의 비판커뮤니케이션 연구,” 한국언론학회 주최 제8차
‘쟁점과 토론’ 발표논문집, 1992.

· 차배근, <커뮤니케이션學概論(上): 全訂版>, 서울: 세영사, 1991.

Althusser, L., *For Marx*, London: Verso, 1977.

Ang, I., *Living Room Wars : Rethinking Media Audience for a Postmodern World*,
London : Routledge, 1986.

Curran, J., "The New Revisionism in Communication Research : A Reappraisal,"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vol.3, no.2-3, 1990, pp.135-164.

Grossberg, Lawrence, "Cultural Studies : Definition, Project, and the Issue of
Globalization," "나의 문화연구: 정의, 기획, 그리고 지구화의 문제," <언론과 사회>
18호, 1997년 겨울호.

Im, Yung-Ho, "Critical 200 Communication Studies in South Korea," *Journal of
Communication Inquiry*, vol.17, no.1, Winter 1993, pp.108-123.

Lazarsfeld, Paul "Remarks on Administrative and Critical Communication
Research," *Studies in Philosophy and Social Science*, vol.9, 1941, pp.2-16.

McGuigan, J., *Cultural Populism*, London: Routledge, 1992.

Pepper, S. C., *World Hypotheses : A Study in Evidence*,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6.

Peters, J., "Institutional Sources of Intellectual Poverty in Communication Research,"
Communication Research, vol.13, no.4, 1986, 527-559.

White, H., *Metahistory : The Historical Imagination in Nineteenth-Century Europe*,
Baltimore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3.

Williams, R., *Marxism and Literature*,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77.